

【특집논문】

유불도와 선을 아우른 최치원의 평화 사상

이도흠 (한양대학교)

국문요약

신라 말기의 사상가, 시인, 정치인이었던 최치원은 유불도와 풍류도에 능통한 지식인이었다. 그의 사상을 평화관의 입장에서 생명평화사상, 소극적 평화사상, 적극적 평화사상, 차이의 평화관으로 나누어 조명하였다.

최치원은 풍류도, 도교, 불교를 회통(會通)하는 생명 평화관을 가졌다. 그는 모든 생명과 인간이 다 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온생명이 하나로 범아일여(梵我一如)를 형성하다가 함께 해탈을 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그는 함양의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 위천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독을 쌓는 대신 숲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면서도 홍수를 막는 대안을 택하였다.

최치원은 전쟁터에서든 이를 기억하는 장소든, 전쟁과 평화를 대조하면서 후자를 지향하였으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이 땅 신라가 아예 전쟁 자체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으며, 무기를 거두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잘 살게 하는 길이라고 피력하였다.

최치원은 생명이 위기를 겪고 사람들의 본성이 어지러운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세상과 시국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사회 구조적인 인식을 하였다. 이에 먼저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을 씻어내는 재(齋)에 진력하고 환란이 오지 않게끔 경계하여 폭력과 다툼을 아예 없애는 계(戒)에 힘써야 한다며 전쟁과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적극적 평화사상을 피력하였다.

최치원의 평화 사상을 21세기의 맥락에서 조명할 때, 그의 생명평화사상은 심층생태론과 상통하며, 홍수를 막기 위하여 삼림을 조성한 대안은 근대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탈근대적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다름 인정의 사유는 근대적 주체가 동일성에 포획되어 타자를 상정하여 배제하고 혐오와 폭력을 행한 것을 성찰하는

차이와 타자성의 사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생명평화, 풍류도, 소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적극적 평화, 차이의 사유

I. 머리글

주지하듯 최치원(崔致遠, 857~?)은 신라와 중국 양국에서 활동하고 이름을 날린 시인이자 정치인이고 사상가다. 그는 조선시대에 여러 문묘(文廟)에 배향되고 서원에 종향(從享)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갖는 대표적인 유학자였지만 불교와 도교에도 능통하였고, 풍류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으며, 중국과 다른 신라의 정체성이나 자주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동인의식(東人意識)도 강하였다.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사상에 대해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가 1980년에 김복순¹⁾의 석사학위논문 *필두로 최근영, 류승국, 송향룡, 최일범, 한종만* 등의 연구가 이어졌으며, 최영성은 1990년에 최초의 최치원 사상 관련 학술저서인 『최치원의 사상연구』(아세아문화사)를 펴냈고, 1997년에는 부산 파전 한국학당에서 연구논총 제1집으로 『고운의 사상과 문학』을 출간하였다. 2008년에는 장일규가 최치원의 생애와 사상, 특히 정치사상을 당대 사회와 연관하여 해석한 『최치원의 사회사상연구』(신서원)를 출간하였고, 2009년에는 고운국제교류사업회에서 그동안 발표된 고운의 철학과 종교에 관련된 논문을 모아 『고운 최치원의 철학·종교 사상』(문사철)을 편찬하였다. 2012년에는 고운의 모든 텍스트에 대해 정확한 번역을 행한 바 있는 최영성이 사상의 형성배경, 유불도 사상, 인본주의적이고 주체

1) 김복순, “최치원의 사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적인 의식, 현대적 의의 등을 망라한 『고운 최치원의 철학사상』(문사철)을 출간하였다.²⁾

최치원의 문학사상, 유불도에 관련된 사상에 대해서는 자료도 풍성하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그의 평화사상에 관련한 연구는 아직 단 한 편도 없다. 전자에 비하여 그의 평화 사상을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현전 자료는 거의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그의 행적이거나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텍스트에서 이 논거를 찾아 해석하고 종합하여야 한다. 최치원이 남긴 모든 문건을 읽고 평화에 관련된 텍스트들을 모아, 생명 평화사상, 전쟁과 폭력 반대의 소극적 평화 사상, 구조적 폭력 해소의 적극적 평화 사상,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의 평화관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것이 오늘날에 갖는 의미를 조명한다.

II. 생명 평화 사상

최치원은 유불도 삼교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류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사산비명(四山碑銘)처럼 그가 찬술한 난랑비의 서문이 실려 있다.

최치원은 난랑비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이 가르침의 근본에 대해서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는데, 그 내용은 유불도의 세 가지 가르침을 포함(包含)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을 접화(接化)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서는 효도하고 집밖에 나아가서

²⁾ 기존연구에 대한 연구 성과와 상세한 서지는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연구』(서울: 신서원, 2008)의 ‘제1장 최치원 연구의 성과와 전망’을 참고하기 바람.

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이요, 무위(無爲)의 일에 처하며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뜻이요,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석가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라 한다.³⁾

위의 기록을 근거로 풍류도가 유불도 3교를 종합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사대주의적 발상이자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유교를 받아들인 때가 대개 신문왕대 이전, 도교를 받아들인 때가 효소왕대 이전의 시기라 하더라도, 신라 건국 초기부터 풍류도는 있었다. 다만, 최치원이 난랑비를 기술하던 신라 말기에는 풍류도가 이미 신라인에게 잔존적 세계관으로 쇠퇴하고 유불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기에, 당대 신라인에게 풍류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불도와 비교한 것이다. “이 가르침의 근본에 대해서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라고 따로 기술한 이유도 이와 같다.⁴⁾

세계관이란 세계의 부조리에 대한 집단무의식적 대응양상의 체계이자 집단적 믿음의 체계로서 의미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바탕체계다.⁵⁾ 『삼국유사』에서 외침이나 재난 등 세계의 부조리에 대해 대응한 양상과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의미를 형성한 것을 종합하면, 신라의 풍류도는 한마디로 말해 삼재(三才) 사상과 신라적 샤머니즘에 산신신앙(山神信仰)과 풍류를 추구하는 삶이 결합한 것이다. “풍류도는 북방 샤머니즘의 고유한 사상체계인 ‘3수 분화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⁶⁾ 우주론으로

3) 金富弼,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 “三十七年 春… 崔致遠鸞即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4) 이 단락은 이도흠, “新羅人의 世界觀과 意味作用에 對한 研究”, 『한민족문화연구』, 제1집 (1996년 12월), pp. 159~162을 참고함.

5) 이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양대출판부, 1999), pp. 182~192.

6) 우실하, 『3수분화의 세계관』 (서울: 소나무, 2012), p. 78. 광의의 선(仙)은 도가

보면, 타계로 천상계와 해수계, 지하계를 설정하고 인간계와 타계가 서로 순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늘을 최고신격으로 하되 하위신격으로 타계와 인간계의 중개자인 산, 새, 용, 나무, 달, 별, 거북 등을 숭배한 신앙이다. 집단무의식적 대응양식으로 보면, 착하게 살아온 부모형제의 병이나 죽음 등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서 ‘지금 여기에서’ 샤먼(巫)의 매개를 통하여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불러오는 제재초복(除災招福)의 원리를 통하여 다시 조화와 전일(全一)을 도모하려 하였다. 집단적 믿음의 체계나 윤리관이나 생활관에서 보면, 자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이와 하나가 되려는 범아일여(梵我一如)를 추구하였다.

풍류를 따르는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풍류도(風流徒)로도 불렸던 화랑은 인위를 배격하고 무위(無爲)의 자연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노닐며 소요(逍遙)의 삶을 행하였고, 또 고대 한국인은 말에 신령이 깃들어있다는 언령(言靈)신앙을 믿었고 언어 저 너머에 궁극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고 굳이 언어로 뜻을 나타내는 것을 지양하였으니 이런 삶과 언어에 대한 이해는 도교와 통한다. 풍류도에서는 새도, 거북이도, 말도, 나무도, 심지어 생명이 없는 달과 별과 산도 모두 신(격)이다. 이렇듯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선한 일을 추구하고자 하니 이는 불교적 삶과 통한다.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닦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와 의리를 지키며 상하가 예(禮)를 따라 자연 속에서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단련한 몸으로 나라와 임금에 충성하고자 한 것은 유교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 이렇듯 풍류도는 개인적으로는 놀이와 노동이 일치하는 아주 자유스러운 삶을 지향

와 풍류도를 포함한 개념이고 협의의 선은 풍류도를 뜻한다. 필자가 앞의 논문(각주 4번)에서 이를 구분하는 논증을 펴는데도 이번 발표문 원문에서는 유불도와 선을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명백히 구분한 것은 토론 때 우실하 교수의 지적 덕분이다.

하며, 타자에 대해서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신앙이자 삶의 원리다.⁷⁾

이런 바탕에서 볼 때, ‘接化群生’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과 마주쳐서 어울리며 (서로) 변화하다”의 뜻이다. 이는 도교와 관련된 다른 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치원은 자연과 생명이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서 상대방을 생성시켜 주는 존재로서 파악하고 온 생명들과 평화를 모색하였다.

삼가 원하옵건대, 참된 바람이 세상을 깨끗이 씻고 아득히 큰 호수의 물이 세차게 흘러 우리 임금께서 암음(巖音)에서 만세를 누리시고 … 그런 뒤에 머리털을 인 것과 이빨을 머금은 것에서 비늘을 달고 헤엄치는 것과 하늘을 날아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날마다 하는 일을 모르면서도 하늘이 이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여지이다.⁸⁾

머리털을 가진 사람, 이빨을 가진 포유류의 동물, 비늘을 달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조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을 동등하게 주체로 나열하고 있다. 날마다 하는 일을 모른다는 표현은 이 글이 도교의 재사(齋詞)로 쓰인 때문이다. 도교에서 바라보면, 온 생명들은 유교에서 바라보듯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 지 자신도 모른 채 제

7) 이 단락도 각주 5처럼 위의 글, pp. 159~162을 요약하며 약간 수정함.

8) 崔致遠, 『桂苑筆耕』, 卷15, 「中元齋詞」: “伏願眞風蕩滌 玄澤滂流 吾君享萬歲於巖音 … 然後戴髮含齒 鱗潛羽翔 不知日用之功 各遂天成之樂” 이하 『계원필경』은 『桂苑筆耕』(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을 활용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최치원의 원문 텍스트의 번역은 최영성, 『역주 최치원전집』 1-2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1999)과 한국고전번역원DB를 참고하되, 필자가 나름대로 번역하였기에 대략 10~30%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시의 번역은 우리 시가의 3.4조나 4.4조의 율격에 맞추어 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평소 지론과 전후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각각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물을 생성하며, 그것들로 이루어진 우주 삼라만상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다. 자연(自然)은 이름 그대로 인위(人爲)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 작동하고 그리 존재하고 아무런 함이 없이 하지 않음이 없는 무위(無爲)이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자 하늘이 부여한 즐거움이다. 최치원은 도교의 재사를 통하여 인간과 포유류, 조류, 어류들이 모두 다같이 하늘이 부여한 무위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는 다음 재사에도 나타난다.

공중을 날거나 물속에서 뛰어오르는 것, 땅을 기어다니는 것과 부리로 숨을 쉬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수지역’에 올라서 혼미한 길을 밟지 않기를 바라나이다.⁹⁾

‘인수지역(仁壽之域)’이란 천수를 다하며 즐겁게 사는 태평성대를 뜻한다. 여기서도 새, 물고기, 벌레, 포유류 등 모든 동물이 태평성대의 평안한 백성처럼 자기 목숨을 다하면서 즐겁게 살고, 그렇지 못한 채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거나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런 도가적 생명평화관은 불교를 만나 더욱 높은 단계로 상승한다.

그 다음으로 원하건대, … 태위께서 묘당에 높이 앉아…무릇 머리털을 인 것과 이빨을 머금은 것에서 비늘을 달고 헤엄치는 것과 하늘을 날아가는 것에 모두 자비를 입어 능히 완전히 해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¹⁰⁾

이 글에서 최치원은 불교의 교리를 통해 생명평화를 피력하고 있다. 머리털을 가진 사람과 이빨을 머금은 포유류, 비늘을 달고 헤엄치는 어

9) 위의 책, 권15, 「下元齋詞」: “至於翔翼躍梨事 跂行喙息 偕登仁壽之域 不躡昏迷之途”

10) 위의 책, 권16, 「求化修大雲寺疏」: “…次願太尉… 高坐廟堂…凡於戴髮含齒 潛羽翔 皆荷慈悲 盡能解脫”

류, 하늘을 날아가는 조류가 모두 동등하게 부처님의 자비를 입어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다. 내공이 깊은 스님들조차 불성과 해탈의 대상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다. 대다수의 스님들이 짐승에게도 불성(佛性)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짐승이 열반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최치원은 어떤 동물이든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온 생명들의 해탈을 소망하고 있다.

최치원은 글과 사상만이 아니라 생명평화를 몸소 실천하였다. 진성왕(재위 887~896) 때 최치원은 함양의 태수로 부임했다. 함양을 가로질러 흐르는 위천은 자주 홍수가 났다. 홍수의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독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길을 트는 것이다. 독은 물을 썩게 하고 생명들을 죽이지만, 숲은 빗물을 품었다가 정확한 다음 서서히 내보낸다. 물은 흐르면서 이온작용, 미생물의 물질대사, 식물의 흡수에 의하여 자연정화를 한다. 독을 쌓아 홍수를 막으면, 물이 흐르면서 자연정화를 하는 것이 중단되어 강을 오염시키고 그 강에 서식하는 생명을 죽인다. 최치원은 홍수를 막기 위하여 독을 쌓는 대신 상림이라는 숲을 조성하고 숲 사이로 실개천을 여러 개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별채를 하여 하림(下林)은 사라져버리고 상림(上林)만 남았으나, 지금도 폭 200~300미터, 길이 2킬로미터, 6만여 평에 걸쳐 2백 년 된 갈참나무를 비롯하여 120종, 2만여 그루의 활엽수가 원시림과 같은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¹¹⁾ 그렇게 하여 1천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홍수를 막으면서도 물이 더욱 맑게 흐르게 했다.¹²⁾

11) 『경남도민일보』, 2014년 8월 8일; 『한국일보』, 2015년 8월 18일. 참고함.

12) 盧思慎, 『신증동국여지승람』 31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0), p. 247에 상림 안에 있는 ‘학사루(學士樓)’에 대해 “최치원이 태수로 있으면서 등림(登臨)하던 곳인 까닭으로 학사루라 이름하였다.” 1923년 최씨문중(崔氏門中)에서 세운 「문

이처럼 최치원은 풍류도, 도교, 불교를 한데 아우른 생명 평화관을 가졌다. 풍류도에서 보면 모든 생명과 자연은 신이 깃든 곳이며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울려 하나가 될 때 지극한 즐거움, 곧 흥(興)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도가에서 보면, 모든 동물과 인간이 무위 자연을 이루는 것으로 다 같이 평등한 것이다. 불가에서 보면,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탈을 할 수 있다. 최치원은 풍류도, 도교, 불교를 아울러 모든 생명과 인간이 다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온생명이 하나로 범아일여(梵我一如)를 형성하다가 함께 해탈을 하기를 바랐으며, 실제로 함양의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 위천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독을 쌓는 대신 숲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면서도 홍수를 막는 대안을 택하였다.

Ⅲ. 전쟁과 폭력 반대의 소극적 평화 사상

주지하듯, 최치원은 고변(高駢)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지은 글이 표·장·격(檄)·서(書)·위곡(委曲)·거첩(擧牒)·제문(祭文)·소계장(疏啓狀)·잡서(雜書)·시 등 1만여 수에 달하였으며, 귀국 후 정선하여 『계원필경 桂苑筆耕』 20권으로 엮어내었다. 그가 종사관으로 참전하여 맡은 바 임무대로 글을 썼음에도 전쟁을 좋아한 흔적은 없다. <가야산 독서당

창후최선생신도비(文昌侯崔先生神道碑)에는 “...일찍이 함양에 부임하여 벌을 주지 않고도 (백성들을) 교화하여 행실이 다르게 하였으며 고을에 학사루를 세우고 긴 제방에 손수 나무를 심었다.(…莅咸陽不罰化行移郡建學士樓 手植木於長堤)”라는 기록이 있다. 이 단락은 이도흠, “원효의 화쟁사상과 생태이론의 비교철학적 연구,” 『돈암어문학』, 14집 (2001), pp. 22-23 요약.

에서)란 시를 보면 “저 세상 시비소리 귀 닿을까 두려워서/일부러 물 들려서 모든 산을 감쌌다네”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시구와 실제 가야산에 은거한 그의 삶으로 유추할 때, 그는 시비조차 싫어하는 품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물시계에선 아직 물방울 떨어지고 있건만, 은하는 벌써 한 바퀴를 돌았구나. 어렴풋이 산천은 시나브로 변하여, 들쭉날쭉 물상들이 드러나려 하는데, 높고 낮은 새벽 안개의 모양이 어슴푸레 분간되니, 구름사이로 궁전이 보인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수레가 움직이니 길 위에 먼지가 일어난다. 하늘가가 밧그레해지며 해 주변에 푸른 기운이 감돌고, 먼 숲의 나뭇가지에는 성긴 별이 깜빡이고, 어젯밤부터 묵은 안개가 거두어지니 성밖 들판의 때갈들이 드러난다. 화정(華亭)에는 바람결에 두루미 울음소리가 여전히 아련하게 들려올 것이고, 파협(巴峽)에는 달 밝은 밤에 멀리서 들려오던 잔나비 슬픈 울음소리가 지금쯤은 그쳤을 것이리라. 어슴푸레 보이는 주막집 푸른 깃발 속에 마을은 아스라한데 초가에선 닭울음소리 들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누각에서 등지를 비운 채 제비들만 지지배배 지지간다. 유영(柳營) 안에서 조두(夜警)을 마치자 계수나무 궁전(桂殿) 곁에선 벼슬아치들이 의젓하게 의관을 정제한다. 변방의 성에서 기르는 말은 자주 울어대고, 너른 모래밭은 아득하다. 그 너머 멀리 보이는 강엔 외로운 돛단배 모두 사라지고, 오랜 강 언덕은 푸르기만 하다. 어부의 피리소리 청아하고 쑥덤불은 이슬에 함뼉 젖었는데, 온산엔 푸른 서기가 높고 낮게 깔려 있네. 사방의 들에는 새벽안개가 자욱하고, 뉘집의 푸른 난간일런가, 피꼬리는 노래하는데 비단장막은 아직도 드리워져 있고 몇몇 부유한 집에서는 잠에서 깨었으리만 구슬발을 채 걷지 않았네.(…) 외로운 성엔 백전(百戰)을 치른 군사들이 머물고 있건만, 오랑캐의 피리 소리는 그치지 않네.(…)¹³⁾

13) 최치원, 『孤雲文集』, 賦, 「詠曉」, 최영성, 앞의 책, 2권, pp. 49~50. : “玉漏猶滴 銀河已回 彷彿而山川漸變 參差而物像將開 高低之烟景微分 認雲間之宮殿 遠近之軒車齊動 生陌上之塵埃 晃蕩天隅 蔥籠日域 殘星映遠林之梢 宿霧斂長郊之色 華亭風裏 依依而鶴唳猶聞 巴峽月中 迢迢而猿啼已息 隱映青帘 村迥而雞鳴茅屋 燾微朱閣 巢空而燕語雕梁 罷刁斗於柳營之內 儼簪笏於桂殿之傍 邊城之牧馬頻嘶 平沙漠漠 遠江之孤帆盡去 古岸蒼蒼 漁簞聲瀏 蓬州露灑 千山之翠嵐高下 四

위의 부(賦), 「새벽을 읊다(詠曉)」를 보면, “유영(柳營) 안에서 조두(夜警)을 마치자”와 “외로운 성엔 백전(百戰)을 치른 군사들이 머물고 있건만, 오랑캐의 피리 소리는 그치지 않네.”라는 대목이 나온다. 유영(柳營)은 병졸들이 장군 주아부(周亞夫)의 명령에 따라 시찰 나온 한문제(漢文帝)도 제지할 정도로 군기가 엄정했던 세류영(細柳營)을 가리킨다. 조두(刁斗)는 낮에는 취사용구로 쓰다가 순라를 돌 때 야경(夜警)용으로 두드리던 용기를 뜻한다. 군기가 센 군영에 야경이 끝나고 날이 밝았음을 의미한다. 지금 최치원이 글을 쓰는 현장은 아군의 군영까지 오랑캐의 피리 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최전선이다. 그럼에도 이 두 문장을 빼면, 위의 글에서 전혀 전시의 급박함과 불안감, 처절함을 느낄 수 없다. 날이 밝았는데도 비단장막과 구슬발을 걷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평화 시의 고즈넉하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성과 마을 정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시인데 어찌 성안의 모든 사람과 군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는가. 군영과 성, 마을, 그곳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최치원의 마음이 그런 까닭이다.

공산성 둘러싼 강산은 그림같은데
 고요히 병란그쳐 오늘에도 애담구나.
 홀연히 음풍불어 큰물결을 일렁이니
 그날의 북소리 쿵쿵쿵 들리는 듯.¹⁴⁾

공주 공산성을 산이 옷깃처럼 둘러싸고 강은 띠처럼 두르고 흐르는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곳 웅천주의 도독 김헌창(金憲昌: ?~822년)은

野之風烟深淺 誰家碧檻 罵啼而羅幕猶垂 幾處華堂 夢覺而珠簾未捲(…) 駐孤城
 百戰之師 胡笳未歇(…)

14) 최치원, 「公山城」, 위의 책, pp. 62-63. : “襟帶江山似畫成/可憐今日靜消兵/陰風忽捲驚濤起/猶想當時戰鼓聲”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金周元)이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알천의 물이 넘쳐 건너지 못하자 이 틈을 노려 상대등 김경신이 원성왕에 오른 것을 문제 삼아 반란을 일으킨다.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와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을 복속시킬 정도로 큰 전쟁이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김현창은 자살한다.¹⁵⁾ 그리 병란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 오늘에도 애달프다. 죽음을 기운 담은 음산한 바람이 불어 공산성 옆을 흐르는 금강에 거센 물결을 일렁이니, 그날 울렸던 전쟁의 북소리가 쿵쿵쿵 들리는 듯하다. 최치원은 김현창의 반란과 이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전쟁의 참상과 아름다운 강산을 대비시켜 비교하며 애달파하고 있다. 「강남으로 돌아가는 진사 오만(吳巒)을 보내며」에서도 “전쟁으로 가는 곳마다 사건도 많은데/언제 다시 만나 시와 술을 나누리(干戈到處方多事/詩酒何時得再逢)”로 노래한다. 친구와 만나 평안하게 시와 술을 나누는 평화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전쟁을 대비하며 평화의 삶을 누리지 못함을 슬퍼한다. 이로 최치원이 전쟁터에서든 이를 기억하는 장소든, 전쟁과 평화를 대비하며 후자를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직설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글로도 나타난다. 고운은 효공왕 12년(908)에 중알찬(重闕粲)으로 호국의영도장(護國義營都將)을 지내던 이재(異在)가 국가의 경사를 기원하고 병란을 없애기 위하여 남령(南嶺)에 팔각등루(八角燈樓)를 세웠기에 그 기문을 썼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결심하는 것은 아마도 불사(佛事)를 융성하게 하는 일이라. 어두운 곳이 생기지 않게 하고 미혹한 중생들을 널리 깨우치기를 바라옵나니,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불법(佛法)의 등불을 높이 매달아 병화(兵火)를 빨리 없애야 되리.¹⁶⁾

15) 김부식, 『삼국사기』, 「신라본기」, 憲德王 14年 조 요약.

16) 최치원,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앞의 책, p. 299. : “決報君恩 蓋隆佛事

최치원이 이재를 빌려서 말한다. 여기서 전제는 임금의 뜻과 이재의 뜻이 일치하는 것이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미혹한 중생들을 널리 깨우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불법의 등불을 높이 밝히는 것이다. 등불이 어두운 곳을 비추어 밝게 하듯,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곳곳에 퍼지고 사람마다 간직하게 하여 전쟁을 없애는 것이다. 당시에는 호국삼부경이었던 『인왕경』, 『법화경』, 『금광명경』의 가르침에 따라 1백 명의 스님을 청해 1백 분의 부처님을 모셔놓고 공양을 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호국(護國)을 기원하였다. 적들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만 그들이 아예 외침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영역이었다. 이처럼, 최치원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심이 깃들고 더불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이 땅 신라가 아예 전쟁 자체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발원하였다.

앞드려 생각하옵건대, 선왕께서는 자기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으로 임금 노릇을 하시고 백성을 자식처럼 돌아보셨으며, … 바야흐로 간과(干戈)를 영원히 거두고 만물을 능히 소생하게 하였거늘, 헛되이 활과 칼만 남겨둔 채 갑자기 팔음(八音)이 그치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사옵겠습니까.¹⁷⁾

위의 글은 현강왕이 승하한 뒤에 화엄경으로 결사(結社)를 하면서 명복을 빌며 지은 발원문으로 보인다. 현강왕이 무기를 거두고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게 한 것을 찬양하고 있다. 현강왕이 죽음으로써 순(舜) 임금이 떠날 때처럼 온 세상에 거문고, 비파, 석경, 종, 피리 등 여덟 악기의 음악이 끊겼다고 표현하고 있다. 현강왕의 여러 업적 가운데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한 것을 칭송하고 있다. 실제로 『삼국

所願不生冥處 遍悟迷羣 唯宜顯舉法燈 亟銷兵火”

17) 최치원, 『華嚴經社會願文』, 앞의 책, pp. 224~225. : “伏惟先王, 剋己爲君, 視民如子, … 方當永戢干戈 能蘇萬彙 豈料空遺弓劍 遽密八音”

사기』를 보면, 현강왕 대에 전쟁의 기록이 없다. 실제 있었지만 누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왕 6년에 총리직에 해당하는 시중 민공(敏恭)이 “왕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서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시정이 즐거워하니, 이는 왕의 어진 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¹⁸⁾라고 대답하고 있다. 왕 12년에는 북쪽의 변경에 있는 진영에서 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자쪽을 나무에 걸어놓고 갔는데, 거기에는 “보로국과 흑수국 사람들이 모두 신라국과 화친하고자 한다”¹⁹⁾라고 쓰여 있었다. 이로 추론하면, 현강왕 대에 실제로 신라가 화평하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고 이웃나라조차 화친을 맺으러 온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 또한 이런 평화를 원하였기에 수많은 현강왕의 치적 가운데 이를 꼽은 것이다. 최치원은 무엇보다도 간과를 거두는 것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길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무기를 없애는 일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일뿐만 아니라 만물을 잘 살게 하는 길이라고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치원은 전쟁터에서든 이를 기억하는 장소든, 전쟁과 평화를 대조하면서 후자를 지향하였으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이 땅 신라가 아예 전쟁 자체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으며, 무기를 거두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일뿐만 아니라 만물을 잘 살게 하는 길이라고 통찰하였다.

18)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本紀』, 憲康王 6年: “上即位以來, 陰陽和, 風雨順, 歲有年, 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娛, 此, 聖德之所致也.”

19) 같은 책, 12年 조: “寶露國與黑水國人 共向新羅國和通”

IV. 전쟁 예방의 적극적 평화 사상

소극적 평화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적극적 평화는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예방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마음을 다스려 분노와 이기심, 악함을 줄이고 관용과 이타심, 선함을 키우는 것이다.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평화적인 교환 체계를 만들고 이를 보장하는 협정을 맺는 것과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다.²⁰⁾ 요한 갈통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과 함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과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 개념을 설정한다. ‘구조적 폭력’이란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와 지금과 다른 상태로 될 수 있는 것,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²¹⁾이다. 위암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 실패로 죽는 것은 자연사이이지만, 제때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는다면 이것은 구조적 폭력이다.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려 하고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에게 ‘피할 수 있는 모독’을 가하는 것이다.

지금 불법이 장차 쇠멸하려 하면서 마군(魔軍)이 다투어 일어나고 있으니,

²⁰⁾ 인간은 선과 악, 자신 및 자신의 유전자와 친연도가 높은 사람이나 집단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타인을 살해하거나 타인을 약탈하려는 이기적 유전자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 협력을 하는 이타적 유전자가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genetic chimera)다. 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의 획득방식은 생산, 교환, 약탈이다. 그러기에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안은 자원을 교환하고 이를 보장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증은 이도흠,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서울: 자음과 모음, 2015), pp. 229~249를 참고하기 바람.

²¹⁾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6, No.3 (1969), p. 168.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아득히 먼 것을 바라보면서 연기가 짙게 일어나 불타서 없어질 것을 걱정한다. 도가의 교훈에 이르기를 ‘안정되어야 보전하기가 쉽다’라고 하였고, 유가의 글에 이르기를 ‘미리 환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지 않고서 이를 바라는 것을 폭력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 마음을 씻어내는 것을 재(齋)라 하고, 환란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계(戒)라고 한다. 유자(儒者)도 이와 같이 하는데, 어찌 불자(佛者)가 그냥 있을 수 있으리오.²²⁾

최치원은 도적과 반란군이 들끓어 신라가 쇠멸하는 상황에서 가야산 해인사의 결계(結界)를 도모하는 자리에서, 왕족과 귀족은 물론 온 백성들이 탐욕을 씻고 미리 환란을 경계하고 예방을 하여 나라를 살릴 것을 불교 경전과 『논어』, 『도덕경』을 인용하며 간곡하게 청하고 있다. 여기서 마군(魔軍)은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삼독(三毒)이고, 형이하학적으로 보면 삼독을 씻어내지 않은 채 물든 자들, 더 나아가 도적들일 것이다. 최치원은 도가의 말을 인용하며 안정되고 평화로운 때에 미리 조심할 것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최치원은 미리 경계하여 환란을 방지하는 것을 계(戒)라 정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폭력이라 비판하였다.²³⁾ 환란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먼저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폭력으로 단정한다. 먼저 마음속에서 분노와 갈등 등의 마음을 씻어내는 재(齋)에 진력하고 환란이 오지 않게끔 경계하여 폭력과 다툼을 아예 없애는 계(戒)에 힘써야 한다고 폭력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해 묘파한 것이다.

최치원에게 과연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 사회에 대한

22) 최치원, 「新羅伽耶山海印寺結界場記」, 앞의 책, pp. 308~309. : “況今象法將衰 魔軍競起 觀日暮而途邈 慮烟深而火熾 道訓曰 其安易持 儒書云 不戒謂暴 … 且 洗心曰齋 防患曰戒 儒猶若此 釋豈徒然”

23) ‘防患曰戒’에서 ‘患’은 근심, 환란 등 여러 뜻을 갖는다. 개인적인 것인가 집단적인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글이 각처에서 도적과 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쓴 것이므로 환란으로 번역하였다.

구조적 인식이 있어야만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 그의 시, 「강남녀(江南女)」를 보면, 바느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교태를 부리고 분단장과 춘정(春情)에 이끌리는 노래나 하는 강남녀와 하루 종일 길쌈을 하는 사녀(舍女)를 비교하고 있다. 이 시에서 강남녀가 도리어 “종일 토록 북과 베틀을 놀리고/길쌈을 거두어도 몸만 힘든데/비단옷은 네 차지가 아니라네.”²⁴⁾라며 사녀를 비웃는다고 묘사하고 있다. 신분의 격차, 하층의 여성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그 노동의 대가를 귀족이 차지하고 귀족의 여인은 일하지 않고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구조적 모순을 노래하고 있다. 최치원은 앞에서 인용하였던 「팔각등루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땅에서는 여전이 간악한 무리들을 용인하는구나! 시국이 위태로우면 생명 모두가 위태로우며,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람들의 물정(物情)도 어지러운 법이다.²⁵⁾

최치원은 당시에 도적이 들끓고 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만이 아니라 생명이 위태롭고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진 원인을 개인에게만 두지 않고 세상과 시국에 두었다. 생명이 생존의 위기를 맞는 것은 생명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국 때문이다. 사람들의 인심이 타락한 것도 사람들의 개인적인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상이 올바르고 시국이 바르게 정립되면 사람의 인심이 순후해지고 생명들은 평안하다. 그러기에, 그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지만, 진성왕에게 나라의 개혁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최치원은 생명의 위기와 사람들의 본성의 어지러운 원인을 개

24) 최치원, 「江南女」, 앞의 책, pp. 54-55. : “終朝弄機杼/機杼縱勞身/羅衣不到汝”

25) 앞의 책, pp. 298-299. : “天未悔禍 地猶容奸 時危而生命皆危 世亂而物情亦亂”

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세상과 시국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사회 구조적인 인식을 하였으며, 먼저 마음속에서 분노와 갈등 등의 마음을 씻어내는 재(齋)에 진력하고 환란이 오지 않게끔 경계하여 폭력과 다툼을 아예 없애는 계(戒)에 힘써야 한다며 전쟁과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적극적 평화사상을 피력하였다.

V.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의 평화관

최치원은 종교와 사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아울러 융합하였다. 주지 하듯 고운은 유불도와 풍류도 모두에 해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반야(般若)로 간과(干戈)를 삼고, 보리(菩提)로 갑주(甲冑)를 삼아”²⁶⁾ 진리에 이르고자 하며 교(教)와 선(禪)을 융합하였고, “유(有)에만 빠져 있거나 무(無)만 고수하면 단지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이해하기 십상이다. 진여(眞如)의 근원에 이르러 한다면 경계가 끊어진 반야(般若之絕境)의 경지로 나아가야 하리라.”²⁷⁾라며 모든 존재를 공하며 부정하는 중관과 긍정하는 유식 사이에서 중도를 취하고 있으며, 선에서도 돈오와 점수 또한 어느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길로 보았다.²⁸⁾ 이는 최치원이 큰 그릇으로 도

26) 최치원,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앞의 책, p. 298.: “以般若爲干戈 以菩提爲甲冑”

27) 최치원, 『孤雲集』 권2, 碑, 「無染和尚碑銘」.: “滯有守無, 徒銳偏解 欲詣眞源 其般若之絕境”(한국고전번역원DB 활용함)

28) 이도흠, “최치원, 유학파 지식인, 불교에 빠지다,” 『불교평론』, 64호 (2015.12.1)에서 시인, 유교관료, 사상가로서 최치원이 본 불교로 나누어 그의 불교관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4장 “사상가로서 본 불교”(pp. 20-26)에서 이에 대해 논증하였다.

를 바라보면서 인본주의, 곧은 마음(直心), 차이의 사유를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위대하도다!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이 마루로 삼는 것은 도(道)다. 사람이 도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도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혹 존귀해진다면 사람도 저절로 존귀해지게 마련이다. 도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덕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가 존귀해지고 덕 있는 사람이 귀중하게 된다.²⁹⁾

최치원은 하늘 아래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이며 사람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도라고 본다. 도란 것이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인 것이자 궁극적 진리다. 그 어떤 도(道)든 사람을 떠나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치원은 궁극적 진리와 사상이 사람을 위해 존재함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도를 따르는 사람 또한 품성을 갖추어야 도에 이를 수 있음도 명확히 한다. 도를 따를수록 사람이 존엄해지며, 거꾸로 사람의 덕이 높아야 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기에 도와 덕은 둘이 아니다. 이처럼, 최치원은 사람과 도, 도와 덕이 불일불이(不一不二)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인간의 자세는 곧은 마음(直心)이다. 그는 “『법장화상전』에서 법장의 행적을 그의 저술인 『화엄삼매관』에서 설한 발심(發心) 가운데서 ‘직심(直心)’의 열 가지 의미에 맞추어 전기를 구성할”³⁰⁾ 정도로 직심을 중요하게 여겼다.

29) 최치원, 『孤雲集』 권1, 記, 「善安住院壁記」: “偉矣哉 天所貴者人 人所宗者道 人能弘道 道不遠人 故道或尊焉 人自貴矣 能助道者 惟崇德歟 然則道之尊 德之貴” (한국고전번역원DB 활용)

30)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철학사상』 (서울: 문사철, 2012), p. 230.

유서(儒書)에 이르기를, ‘곧은 것을 굽은 것 위에 두어야 한다’, ‘생각에 삿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불경에 이르기를 ‘정토가 도량이다’고 하였으니, 바로 직심을 가리킨 것이다.³¹⁾

곧은 것은 늘 굽은 것 위에 있는 것으로, 곧은 마음을 가지면 생각할 때마다 삿됨이 없이, 좋은 시를 쓰고 입을 때처럼 늘 성정의 올바름(性情之正)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곧은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으로, 유리창의 먼지를 닦으면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무명(無明)을 없애고 삼독(三毒)을 멸하여 곧은 마음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부처이니 곧 바로 정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 곧은 마음을 가지면 유교를 통해서든, 불교를 통해서든, 도교를 통해서든 누구나 진리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최치원은 차이의 사유를 가졌다. 그는 진감선사비에서 “무릇 도는 사람과 멀지 않다. 사람은 나라마다 차이가 없다”³²⁾라고 첫 문장에서 선언한다. 도는 사람들로부터 멀지 않으니 누구나 도를 구하는 자는 이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의 능력, 지위, 인종의 차이는 없다. 누구든 곧은 마음과 신심(信心)만 있으면 이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이란 나라마다 다름이 없다. 물론, 최치원이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한 사례가 진감선사비 하나 이기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장 첫 문장에서 선언적으로 단정하였기에 최치원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유를 가졌다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처럼 최치원은 유불도와 풍류도 모두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큰 그릇으로 도(道)를 바라보고 이 안에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하나로 통할 수 있다고 본 점, 어떤 진리와 중

31) 최치원,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역주 최치원전집』 2권, p.318.: “書云 措諸枉 思無邪 經曰 爲淨土是道場”

32) 최치원, 『有唐新羅國故知異山雙谿寺教誥眞鑒禪師碑銘』, 『역주 최치원전집』 1권, p. 151.: “夫道不遠人 人無異國”

교든 사람이 근본이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의 관점을 지닌 점, 내적으로는
 끈은 마음을 가지면 샅된 생각을 벗어나 누구든 깨달음과 부처에 이른다
 고 통찰한 점, 무엇보다도 동일성을 해체하고 차이의 사유를 지향한 데
 서 비롯된다.

VI. 최치원 평화 사상의 현대적 의미

21세기는 생명의 위기 시대다. 국제자연보존연맹은 전 세계 과학자
 1,700명이 참가하여 조사한 끝에 “44,838종의 대상 동식물 가운데 1.94%
 인 869종이 멸종되었으며, 38%인 16,928종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발표
 했다.”³³⁾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생태론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것은 심층생태론(deep ecology)이다. 이 이론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실현할, 즉 생존하고, 번성하고, 자기 나름
 의 형태에 도달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주장한다.³⁴⁾ 최치원은 모
 든 생명과 인간이 다 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온생명이 하나로 범아일여(梵我一如)를 형성하다가 합

³³⁾ Jean-Christophe Vié, Crig Hilton-Taylor & Simon N. Stuart (eds.), *Wildlife in a Changing World, an analysis of the 2008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Gland, Switzerl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2008), p.16.

³⁴⁾ 심층생태론은 “인간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훼손할 권리가 없다. 인간의 생명과 문화의 번영은 실질적으로 보다 작은 인간 개체군과 양립할 수 있다. 인간 이외의 생명이 번창하려면 인간은 작은 개체군이 되어야 한다.”(Arne Naess,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Michael E. Zimmerman eds., *Environmental Philosophy*,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pp. 196-197)라고 주장한다.

께 해탈을 하기를 바랐다. 이런 점에서 그의 생명평화사상은 심층생태론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최치원이 조성했다는 상림과 실개천의 사례는 비록 9세기에 행해진 것이지만, 근대성의 위기(the crisis of modernity)를 극복하는 탈근대적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적 사유에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폭력적 계층질서가 존재한다.”³⁵⁾ 데리다의 지적대로, 근대적 패러다임은 자연과 인간, 정신과 육체, 이데아와 그림자, 이성과 감성 등 세계를 둘로 나누고 전자에 우월권을 부여한 폭력적 서열체계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홍수에 대한 대안은 독을 쌓는 것이다. 이는 당장의 홍수를 막지만 자연정화를 방해하여 물을 오염시키고 그 속에 사는 생명을 죽인다. 반면에 최치원의 방식은 홍수를 막으면서도 강물을 맑게 유지하여 생명을 살린다. 실제로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독을 쌓는 방식이 강물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훼손했다는 반성을 하고 독을 해체하고 숲을 조성하고 강의 유역을 넓히는 대안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치원은 심층생태론과 상통한 생명평등주의의 사상가였으며 탈근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생태적 대안을 실천한 정치인이었다.

최치원이 시비와 전쟁을 싫어하고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려 한 적극적 평화주의자였던 점도 부각되어야 하지만,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의 사상을 지향하였다는 점도 새롭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성과 교양이 증대되고 보통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보편 원리로 자리를 잡은 20-21세기에 집단학살이 끊이지 않은 근본 이유는 동일성 때문이다. 백

³⁵⁾ Jacques Derrida, tr. Alan Bass, *Posi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 56~57.

인/기독교/우파가 유색인/이교도/좌파에 대해 대량학살을 감행하고 백인 아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유색인 아이는 별 죄책감 없이 살해한 것에서 잘 나타나듯, 동일성은 타자를 상정하고 이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한다. 그러기에 이의 대안은 차이, 혹은 타자성(alterity)의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차이의 사유에서는 동일성을 해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한다.³⁶⁾ 최치원은 동일성을 해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유를 지향하였다.

최치원은 큰 그릇인 도(道)를 바탕으로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유불도와 풍류도를 포용하였으며, 평화사상의 근본에 곧은 마음을 두어 사상의 깊이를 더하였다. 넓이로서 도(道), 깊이로서 곧은 마음, 지향점으로서 인본주의를 설정하여 당대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포용하면서도 사상적 심오함을 잃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서로 갈등하고 넓이를 갖추면 깊이를 잃고 깊이를 추구하면 너른 포용을 잃는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VII. 맺음말

신라 말기의 사상가, 시인, 정치인이었던 최치원은 유불도와 풍류도에 능통한 지식인이었다. 그의 사상을 평화관의 입장에서 생명평화사상, 소극적 평화사상, 적극적 평화사상, 차이의 평화관으로 나누어 조명하였다.

최치원은 풍류도, 도교, 불교를 회통(會通)하는 생명 평화관을 가졌다.

³⁶⁾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이도흠, “폭력 유형별 화쟁의 평화론,” 『통일과 평화』, 9집 1호 (2017)의 3장 ‘직접적 폭력과 변동어이의 눈부처-차이론’ (pp. 12~20)을 참고하기 바람.

그는 모든 생명과 인간이 다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온생명이 하나로 범아일여(梵我一如)를 형성하다가 함께 해탈을 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그는 함양의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 위천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독을 쌓는 대신 숲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면서도 홍수를 막는 대안을 택하였다.

최치원은 전쟁터에서든 이를 기억하는 장소든, 전쟁과 평화를 대조하면서 후자를 지향하였으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이 땅 신라가 아예 전쟁 자체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으며, 무기를 거두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잘 살게 하는 길이라고 피력하였다.

최치원은 생명이 위기를 겪고 사람들의 본성이 어지러운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세상과 시국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사회 구조적인 인식을 하였다. 이에 먼저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을 씻어내는 재(齋)에 진력하고 환란이 오지 않게끔 경계하여 폭력과 다툼을 아예 없애는 계(戒)에 힘써야 한다며 전쟁과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적극적 평화사상을 피력하였다.

최치원의 평화 사상을 21세기의 맥락에서 조명할 때, 그의 생명평화사상은 심층생태론과 상통하며, 홍수를 막기 위하여 상림을 조성한 대안은 근대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탈근대적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다름 인정의 사유는 근대적 주체가 동일성에 포획되어 타자를 상정하여 배제하고 혐오와 폭력을 행한 것을 성찰하는 차이와 타자성의 사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김복순. “최치원의 사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金富軾. 『三國史記』. 서울: 경인문화사, 1969.
- 盧思慎. 『신증동국여지승람』 31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0.
- 우실하. 『3수분화의 세계관』. 서울: 소나무, 2012.
- 이도흙. “新羅人의 世界觀과 意味作用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1집 (1996.12).
- 이도흙.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양대출판부, 1999.
- 이도흙. “최치원, 유학파 지식인, 불교에 빠지다.” 『불교평론』, 64호 (2015.12)
-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연구』. 서울: 신서원, 2008.
-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철학사상』. 서울: 문사철, 2012.
- 최영성. 『역주 최치원전집』 1-2.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1999.
- 崔致遠. 『桂苑筆耕』.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0.
- 崔致遠. 『孤雲集』. 한국고전번역원 DB.
- Derrida, Jacques. (tr.) Alan Bass, *Posi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6, No.3 (1969).
- Naess, Arne.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in Michael E. Zimmerman (eds), *Environmental Philosophy*,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Vié, Jean-Christophe. Hilton-Taylor, Grig & N. Stuart, Simon.(eds.). *Wildlife in a Changing World, an analysis of the 2008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Gland, Switzerl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2008.
- 『경남도민일보』. 2014년 8월 8일.
- 『한국일보』. 2015년 8월 18일.

The Peace Thought of Chi-won Choi

Lee, Doheum (Hanyang University)

Abstract

Chi-won Choi was a thinker, a poet and a politician in Silla dynasty. He was a savvy intellectual familiar with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Pungryu-do*. I analyzed his thought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eacemaker by dividing his thoughts into four categories: life -peace ideology, passive peace ideology, active peace ideology, the peace thought of difference.

He had a ideology of life and peace that combined Buddhism, Taoism and *Pungryu-do*. He thought that all life and man were dignified and equal. He hoped that human beings and all life would coexist in a state of oneness of the universe and self and then reach nirvana together. In fact, when he was appointed governor, he had chosen an alternative to prevent floods while saving lives by building the *Sang-rim* forest of instead of dams.

He directed the latter in contrasting war and peace, whether on the battlefield or in a place where he remembers it. He wanted that Silla dynasty would be a peaceful country with no war itself, under the protection of the Buddha. He thought that eliminating weapons is not only a way to make peace, but a way to live all the lives well.

He identified people and lives as being in crisis because of the state and the situation. He tried not only to oppose the war passively but actively to prevent it. He insisted that the war would be prevented by getting rid of

fundamentally bad feelings and eliminating its causes.

I illuminated his thought in the context of the 21st century. His thoughts are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deep ecology. His choice that build the *Sang-rim* forest can be applied to post-modern alternatives. Owing to be captured by identity, modern subjects excluded and committed violent against others. So, we reflect on the violence of identity and seek alternatives of the ideas of difference and alterity. His ideas are similar to this a little.

Key word: life-peace, *Pungryu-do*, passive peace, active peace, structural violence, the thought of difference

이도흠(Lee, DoHeum)

현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기호학회 회장,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지순협 대안대학 이사장 재직 중. 계간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계간 『문학과 경계』 주간, 민교협 상임의장 역임. 저서로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등.